

## “이번엔 꼭 만나겠지” 가슴 부푼 이산가족

### 차대통령 상봉 제안...광주·전남 신청자 1662명 기대

광안남도 대동면이 고향인 명상열(83)씨는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지 18년이 됐다. 그동안 남북 관계가 긴장과 완화를 반복할 때도,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은 한시도 버려본 적이 없다. 명씨는 “18년 동안 기대를 하며 살아왔지만 특별한 올해는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다”며 들떠 있다.

지난 1950년, 6·25전쟁때 고향을 떠난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팔순이 넘은 명씨는 아직도 가족들의 이름과 얼굴을 뚜렷이 기억한다. 아버지 명필주 선생, 어머니 이화실 여사와 6형제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며 그는 “만날 수 없는” 가족들을 그리워만 하고 있다.

북한의 공평한 현실을 뉴스나 언론에서 접할 때면 명씨는 애가 탄다. 살아있는 가족들이 밥을 굶지나 않을지, 더위에 혹시 건강이 나빠진 것인지는 걱정되지만 직접 볼 수 없

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인원은 전국 12만 8824명으로 이 중 광주에서 656명(0.5%), 전남은 1006명(0.78%)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공식 제안하면서 지난 2010년 11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남북 당국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고, 이미 북측에서 이과 관련된 실무접촉을 제안한 적이 있다. 이 점도 상봉 기대를 높이고 있다.

가족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망자의 비율이 5만5960명으로 전체 인원의 43%에 달하고, 생존자 7만 2882명 중 70세 이상이 5만8555명으로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에서 한시라도 빨리 가족 상봉의 기회를 만들어 주길 바라는 이산가족들의 바람도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15일 오전 광주시 남구 빛고을문화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태극기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BK21’ 지방대 홀대 심하다

### 전남대·조선대·광주과학기술원 등 40여곳 지원액 SKY보다 적어

전남대·조선대·광주과학기술원 등 광주·전남지역 3개 대학이 석·박사급 청년인재를 지원하는 ‘BK21 플러스’ 지원대상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총 630억여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지원 규모의 65%가 수도권 대학에 흘러 ‘지방 홀대’라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대 등 SKY대학에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이 집중돼 정부가 오히려 연구활동의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5일 전국 64개 대학, 195개 대형 사업단과 280개 소형 사업단을 ‘BK21 플러스’ 사업의 핵심인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BK21 플러스’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매년 약 2500억원을 투입해 과학기술분야 1만5700명, 인문사회분야 2800명 등 석·박사급 1만8500명을 양성하는 대학원 지원 사업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3개 대학에서 총 32개 사업단(팀)이 선정됐다.

전남대는 기초과학·응용과학 등 과학기술분야 6개, 문화와 철학 등 인문사회분야 2개,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융복합분야 2개, 소규모 팀단위 사업 12개 등 총 22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단은 매년 70억7700만원씩 7년간 총 495억39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비 지원액으로는 전국 대학 가운데 9번째 규모다.

조선대는 컴퓨터·제어계측·생물·약학·언어학·경영 등 사업팀 6곳이 밝혀 매년 11억2200만원씩 78억5400만원을, 광주과학기술원은 생물·환경공학 등 2개 사업단과 전자·정보통신 등 2개 사업팀이 8억1000만원씩 7년간 총 56억7000만원을 받는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지원되는 BK21 사업비는 연간 총 90억여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 수준에 그쳤다. 지방 소외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선정된 지방대학 40여곳에 지원되는

대학명	과학기술	인문사회	융복합	사업팀	합계	지원액(백만원)
전남대	6	2	2	12	22	7,077
조선대				6	6	1,122
광주과학기술원	2			2	4	810

대학명	과학기술	인문사회	융복합	사업팀	합계	지원액(백만원)
서울대	16	4	2	13	35	38,534
고려대	13	8	3	5	29	22,300
연세대	11	7	5	5	23	21,111
부산대	11	3	1	12	27	16,990
성균관대	9	4	3	5	21	15,271
경북대	12	4		6	22	13,690
포항공과대	8			1	9	8,378
경희대	3	1	2	14	20	7,119
전남대	6	2	2	12	22	7,077
과기원	8	1	2	13	23	6,531

총 예산은 788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5%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대(385억원)·고려대(223억원)·연세대(211억원) 등 상위 SKY 3개 대학의 지원액(81.9억원)보다 적어 정부가 오히려 연구활동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한가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안

### 차대통령 8·15 경축사...DMZ 평화공원 조성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공식 제안했다.

〈관련기사 3·4면〉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이제는 남북한 간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먼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고통부터 덜어드렸으면 한다”며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를 북한에 제안한다”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자재로 만들어서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던 전쟁의 기억과 도발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평화를 만드는 것은 상호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해 진정한 평화와 신뢰를 구축해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일(對日) 문제와 관련,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지만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미래로 가는 신뢰를 쌓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주유비 지원 100만원 문의 : 062)226-0001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세정투어여행사 (삼우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남해여행사 (목포 한사랑병원) 061)287-4100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올 여름휴가는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떠나세요!**

처음 만나는 자유, **란주**

장가계 직항 전세기 자연이 벗어날 최고의 걸작

무인출발 10월 8일(화)~11월 12일(화) 총11회 매주 화요일(3박4일)/금요일(4박5일)

**8/30일 카멜리아 특가찬스!**

벤티 후지타 호텔 북큐스 3일

269,000원 ~> 199,000원 ~

출발일 8월30일(금)

특급 힐튼/아소카도만 북큐스 4일

429,000원 ~> 399,000원 ~

출발일 8월30일(금)

세계 3대야경 나가사키아스카 4일

419,000원 ~> 369,000원 ~

출발일 8월30일(금)

**태산 등반 대회**

[CNK845130905WDC] [위등페리] 태산/노산 트레킹 5일

출발일 9월 5일(목) 269,000원 ~

[CNK802130905KCC] [대한항공] 태산/노산 트레킹 4일

출발일 9월 5일(목) 499,000원 ~

**신크루즈** [CWP871-MUA] ◆노소광◆

난주(란주)/돈황/막고굴 5일 999,000원 ~

**뉴틀로드** [CWP871-MU] ◆바람의 나라◆

난주(란주)/황하서림/사파두사막 5일 599,000원 ~

**투기투로드** [CWP871-MU] ◆노소광◆

난주(란주)/황하서림/사파두사막 5일 499,000원 ~

**리틀리브** [CWP871-MUB] ◆노소광◆

난주(란주)/서녕 5일 999,000원 ~

**장가계/원가계 4일** [CJPF01-FM] ◆원문산/카이불기/특산(화) '발마시지'◆

899,000원 ~

**장가계/원가계 4일** [CJPF01-FM1] ◆원문산/카이불기/특산(화) '전신마시지'◆

999,000원 ~

**장가계/원가계 5일** [CJPF01-FM] ◆황석채/천문산/카이불기/특산(화) '발마시지'◆

949,000원 ~

**장가계/원가계 5일** [CJPF01-FM1] ◆황석채/천문산/카이불기/특산(화) '미시지'◆

1,049,000원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에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권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비용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권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로구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로구) ■관광블로그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